

# 발포 명령자·전두환 행적 규명...원본자료 확보가 관건

### 정부 "美 기밀문건 해제 요청" ... 5·18 진실 드러날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측 기밀자료 요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5월 단체와 광주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월 단체들은 5·18 관련 자료가 방대한 만큼 문서의 범위와 포함해야 할 단어 등을 명확히 지목해 발포명령자, 전두환 광주방문 등 5·18 진상규명의 핵심 사항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진실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기밀자료는 모두 10건으로 압축된다. ▲이미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 오고 간 전문과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 삭제된 구문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백악관 상황실에서 1979-80년 작성한 한국 군사안보·광주 관련 기밀문서 ▲국방정보국 문서 중 1979-80년 작성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한미연합사-미8군-국방부 간 오고 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년12월12일-1980년 5월30일) 중 기밀 처리된 문서 ▲1980년 5월 당시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간 오고 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 오고 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요원 등이 작성해서 국방정보국에 올린 보고서 일체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밀문-메모·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광주 관련 부분 등이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 기밀자료를 확보해 군부 시절 집단학살 암매장 등의 조사에 탄력을 받은 사례를 들어 5·18 관련 미국 기밀자료

5월단체·시민단체 환영·기대  
5·18기념재단 자료 10건 압축  
"연구자들과 협의 목록 만들 것"

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발포·학살 경위, 헬기 사격, 공작 활동, 암매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5·18 관련 미국 자료는 수차례 공개됐지만 이름이나 장소 등 민감한 사항은 삭제돼 5·18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어왔다. 광주시는 지난 1997년 4000쪽 분량의 미국 국무부 기밀문서철을 미국정부에 요청해서 확보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에서 실려 있는 이 문서는 미국 기밀 해제 시한(30년) 이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지난 2017년 리퍼트 전 미국대사가 제공한 기밀문서와 같은해 미국 CIA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밀해제 문서, 미국 언론인 팀 셔록씨가 지난 2017년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해 광주시에 기증한 5·18 관련 기밀해제 문서(체로키 파일, 3530쪽 분량) 또한 1997년 문서와 상당수 중복됐다.

5·18 연구자들은 그동안 공개된 자료가 미국 국무성 자료 위주이기 때문에 같은 자료가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공개된 자료라도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미국 국방성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5·18 관련 사죄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정부를 자극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명분을 제시하며 설득해 실리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5·18 역사왜곡처벌 농성단' 회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 기밀문서 공개 백악관 청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5·18 연구자들과 협의해 미국에 요청해야할 문서 목록을 만들어 우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발포 명령자 등 5·18 정점이 미국 자료를 통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문대통령 "비핵화·평화 구축 한미동맹 가장 중요"

美 국방장관 대행 접견  
北 인도적 지원 필요성 설명  
수보회의, 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샤퍼 대행은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

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샤퍼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고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각 당당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달라"며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국회가 정상화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단 3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된 지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

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국 정상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최소한 그 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기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 들어 해외 관광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맞아 사고 후 조력뿐 아니라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평가기준 바꿔...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갈등 해소되나

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  
순천시·여수시 요구  
상생·편의성에 가점 부여키로

전남도가 도시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평가 기준을 바꿨다. '특정지역 선정을 위한 둘러리 공모'라는 잡음을 잠재우면서 '보이콧'했던 자치단체들이 공모에 참여할 지 주목된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3일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평가 기준과 관련, 기존 평가항목에 더해 가점을 부여할 분야를 추가하기로 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설 여수·순천 등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연구원은 여수시가 제출한 '지역 간 상

생발전 항목'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고, 순천시 의견서에 따라 '민원인 편의성' 분야도 가점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애초 통합청사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여수·광양 등 자치단체들이 평가기준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때는 거부했다가 후보지들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지역 시의회가 공정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이 확산하면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결과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의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보이콧'을 결정했던 여수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광양시의 경우 광양시의회가 전체 의견 명의로 성명서까지 내며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을 비판한 이후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힌데다, 평가 기준 변경에 대

한 별도의 의견 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치 신청 여부는 희박하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평가기준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해 공모 신청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기한 뒤 10일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은 김영록 지사의 공약으로, 325억원을 들여 순천·여수·광양 등 도내 동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행정기관을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청사는 3만3057㎡ 부지에 건물 3개동(건축 연면적 9917㎡)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오는 2022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HNT 하나투어

##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우리가족 여행예보 많음

#### 여행마켓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2019. 06. 07(금) - 06. 09(일)

고양 KINTEX 제2전시장

최대 94% 특가 예약 찬스!

세계일주 항공권 EVENT

네이버검색창에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검색하세요!

중국/마카오/러시아/몽골	일본	동남아/대만	하나팩
<p><b>몽골</b></p> <p>1,199,000원~</p> <p>올리바타르/테를기 5일, 6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3박5일 7/27, 8/5, 8/9, 8/13, 8/17 4박5일 7/31</p>	<p><b>블라디보스톡</b></p> <p>559,000원~</p> <p>블라디보스톡 4일, 5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밀, 수, 토요일 2박4일 금요일 3박5일</p>	<p><b>후쿠오카</b></p> <p>449,000원~</p> <p>후쿠오카 3일, 4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수요일 2박3일 금,토요일 3박4일 *7월31일까지 한정예약</p>	<p><b>오미타</b></p> <p>737,000원~</p> <p>오미타/유후인/벳부 3일, 4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밀, 수 2박3일 금 3박4일</p>
<p><b>홍콩/마카오</b></p> <p>677,000원~</p> <p>홍콩/마카오 4일, 5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목, 일요일 4박 5일 목요일 3박 4일</p>	<p><b>상해</b></p> <p>329,000원~</p> <p>상해/항주/주자카 4일, 5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b>보라카이</b></p> <p>502,000원~</p> <p>보라카이 4일, 5일 라카멜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b>세부</b></p> <p>497,000원~</p> <p>세부 5일, 6일 솔레이리조트</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수요일 3박 5일 금요일 4박 6일</p>
<p><b>다낭</b></p> <p>549,000원~</p> <p>다낭/호이안 4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목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b>오사카</b></p> <p>739,000원~</p> <p>오사카/코토/사카 4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밀, 목, 토, 일요일 3박 4일</p>	<p><b>도쿄</b></p> <p>809,000원~</p> <p>도쿄/하코네 4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0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목, 토, 일요일 3박 4일</p>	<p><b>방콕</b></p> <p>399,000원~</p> <p>방콕/파타야 5일, 6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수, 목요일 3박 5일 토, 일요일 4박 6일</p>
<p><b>대만</b></p> <p>530,000원~</p> <p>대만/타이베이/야후 4일</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목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b>코타</b></p> <p>699,000원~</p> <p>코타 5일, 6일 시내 중점</p> <p>항공권: 가이도+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호텔: 목요일 3박 5일, 일요일 4박 6일</p> <p>아이랜드호텔 #반인물투어</p>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항목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행: 도착/비행은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행요금은 상품가에 포함됩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특별/이벤트: 특별/이벤트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거나 별도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광사절자: 등록번호 제2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주/호/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신/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보통/22억 1천만원 기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포함할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과금과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천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여행 유의 \*여행 자체 \*철수 권고 \*여행 금지